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July 2019



관련 기사 4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 4 세 가지 없음

안나의 골방

- 7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8 터키 이즈미르 아스마 빨래방 프로젝트
10 터키 부르사 교회에서 온 소식

터키는 지금

- 11 터키, 쿨렌과의 연계로 210명의 군인 구금 명령
12 이번 터키 재선거를 통해 배운 다섯 가지 교훈
15 2019년,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이민자들 50명의 죽음

중동지역의 오늘

- 16 이슬람 율법학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
18 트럼프 평화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란 - 팔레스타인 계획
22 그리스, 에게해 섬들을 장악하여 국제법 위반

차이지만

- 23 카스타모누 2기 사역을 준비하며

파트너 칼럼

- 27 난민 무슬림 선교는 이슬람권 선교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Mission Frontiers

- 34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2019년 7월 26일 통권 107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룻,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정의의 여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p.4)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장: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나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고훈목사 (뉴욕하운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혁천목사 (상황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진목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김태형목사 (ANC은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오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주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배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벧내리교회)

순화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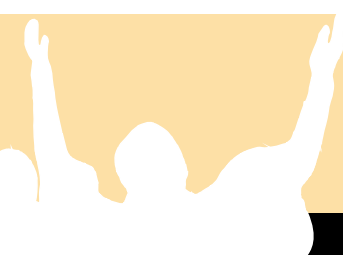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장: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진영 선교사 (SWM 국제/미국 대표)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망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예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여름 기간동안 휴가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지 사역자들이 비어있는 터키 교회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소서!
- 터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용서와 화해의 영이 터키와 쿠르드 및 아르메니아 민족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각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42유닛의 CP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쿠르디스탄에 SWM과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현지 일꾼들을 예비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소서! 특별히 예지디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울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역대하 7:14의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땅과 민족이 주님의 고침과 회복을 받게 하소서!
-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을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세 가지 없음

마지막 때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세워지지 않고 사회적인 정의(正義)가 실현되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회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가 선지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1.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정의(Justice)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인 저스티티아(Justitia)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정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평균적 정의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는 일반적 정의를 가리키며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갖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셋째는 배분적 정의로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존엄, 법의 평등, 개인의 의무와 책임, 노력의 대가 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루는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미쉬파트(Mishpat)' - '마음을 같이 하다'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 용어로서 서로를 향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웃을 향한 사랑, 섬김, 나눔, 베품이 성경에 말하는 정의의 의미이며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철학과 이념, 정치와 경제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타락한 지도자, 부패한 권력, 부조리한 사회의 조직,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 기업의 도덕과 윤리 부재,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정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깨달아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실현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각계 각층의 지도자가 재물과 권력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부패하며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중재하다’는 영어로 ‘intercede’라는 단어인데 라틴어인 inter(between)와 cedere(go)의 두 개 단어의 합성어로 ‘사이를 지나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나가는 사람(중재자)이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누군가 중재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재자의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막아낼 중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중재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들이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합법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의 지도자들이 타락과 부패의 선봉장으로 파멸과 죽음의 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59:15b ~ 16a)



한 영들의 공격을 파하고 하나님께 세상의 죄와 불의를 고하고 탄원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중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중재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삼상 12:23)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안나의 골방
7월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명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16

©GODpeople.com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내어 드리십시오.
영원하고 변함없으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 “너도 내 사랑을 받아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선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분의 눈과 우리 눈을 마주 대하며,
그분 전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더 누리고, 더 맛보고,
더 경험하고, 더 채워져 갈 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생명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내어 드리십시오.
사랑에 실패한다고 느껴지고,
사랑이 바닥난 것 처럼 느껴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고,
내 가족 한 명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냐고 고민한다면,
내 영이 지치고 고갈되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상대방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도 없을 때,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 드려야하는 시간입니다.

멈추되 그 사랑 안에 멈추고
머물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마시되 그 사랑 안에서 마시고
마음을 나누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눌 때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감싸며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멘!





터키 이즈미르 아스마 빨래방 프로젝트

글: 제카이 목사 (2019.5 이즈미르)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 개신교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오랫동안 섬기신 제카이 목사와 엘리슨
사모는 이즈미르에서 난민들을 위한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대의 세탁기를 가지고 많은
난민 가정들이 마음 편히 빨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과 여름에 익숙한 형태로 빨래방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숙제를 덜 받게 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 양은 겨울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계들이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동네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 중 일부가 (현재 시리아 정부군으로부터의 포격을 받고있는) 이들리브 지방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랍인이 아닌 쿠르드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옷을 입으며, 우리는 일부 "새로운" 어린 아이들이 아랍어로 말하지 않고 쿠르드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온 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밀수업자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빨래방에는 130명이 넘는 가족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가족을 돕기 위해 집세, 청구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연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있는 이들의 필요는 끝이 없고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부담을 주는 터키 보건 시스템은 먼 날짜에 진료 예약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몇 주에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리아 여성들은 14세 또는 15세 소녀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출생률은 어려운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에게 지정된 특정 터키 병원에서 출산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서비스가 좋지 않기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매일 30-40명의 어린이가 이곳 빨래방에 와서 우리와 함께 숙제, 게임과 활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령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더 단순한 장난감을 사용했습니다. 3-4살 짜리 어린이들이 차(tea)를 마시는 장난감 세트를 들고 놀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아이들의 집에는 이런 장난감이 없습니다. UNO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좀더 큰 아이들이 즐깁니다. 새로운 퍼즐 (종고품)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즐깁니다. 금요일에는 숙제를 해야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공예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머니의 날 카드를 만들었지만, 어머니는 터키어로 쓴 사랑의 메시지를 스스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곳을 찾는 3학년에 속하는 아이들이 학습 가운데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산수와 글짓기를 꽤 잘 하지만, 대부분은 독서가 뒤쳐져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터키어 발음을 분명히 표현할지라도 아직 글자로 된 터키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외에는 그들이 속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터키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에 터키어를 익히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이 터키어를 배우기 위한 동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시리아인 도우미가 알파벳과 글쓰기를 배우면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도우미 엘레는 이제 일상적인 세탁 목록에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마스는 습득력이 빨라서 터키어 읽기 및 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리아에서의 힘든 삶을 떠나 이곳에서의 삶이 도리어 안정을 찾게 해주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래방에서 노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여름의 더위가 오기 전, 우리는 어린이들을 이즈미르 인근 루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게 하기 위해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즈미르에서 3년 동안 살고 공원 입장료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원에 한번도 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우리와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의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를 통해 아이들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부르사 교회에서 온 소식

글: 이스마일 목사 (부르사)

교회는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 예배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가운데 몇몇의 성도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역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지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열쇠가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사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6월 9일에 세례를 받게될 3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간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잔수는 꿈에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크리스천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DVD를 보게 되었고 부르사에 교회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4년 전, 그녀는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즈기는 일을 하기 위해 찾고 있던 이란인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일을 구하고 있던 여인에게 애즈기는 일을 주었습니다. 이때 애즈기는 신약 성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죄로부터 돌아키는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알리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크리스천 형제가 그를 도와주었고 그 형제는 알리에게 신약성경을 주었습니다. 알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여정이 시작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가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 22일에 청소년 그룹 (알파와 오메가 청소년 그룹)은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파티에 많은 친구들이 오고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월에 우리는 몇명의 젊은이들과 기도와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보주육과 빌레직에 갈 것이고 이후 기도와 전도를 위해 쿠티하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며 큰 격려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스마일 목사 올림





터키, 굴렌과의 연계로 210명의 군인 구금 명령

글: 알 아라비아

번역: 한국 번역팀



이stanbul 검찰은 앙카라가 2016년 군사 쿠데타 실패를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에 대한 혐의로 의심되는 210명을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그것은 공중, 해상 및 육군, 용사 및 해안 경비대의 용의자가 5명의 대령, 7명의 중령, 14명의 소령 및 33명의 대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3년 전 터키 당국이 실패한 쿠데타 시도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성직자인 페트홀라 굴렌의 지지자들로 의심을 받았다. 굴렌은 어떤 역할도 인정하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광범위한 체포가 아직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7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15만 명의 공무원과 군인을 정직시키거나 해고했다. 검찰은 군대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굴렌 지지자의 수는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보다 많고 네트워크는 여전히 터키의 헌법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터키는 굴렌의 네트워크가 군대, 사법부 및 국가 기관에 침투해 있다고 말한다. 앙카라의 서방측 동맹국들은 에르도안의 비판가들이 반체제 인사들의 불만을 억압하려는 구실로 쿠데타를 사용하여 탄압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터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터키 전역의 유선 전화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군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패한 쿠데타에서 약 250명이 사망했다. 1999년부터 펜실베이니아에서 망명생활을 해온 굴렌은 에르도안의 예전 동지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영 아나돌루 기관은 앙카라의 검사가 네트워크 멤버로 믿어지는 41명의 사람들의 구금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2009년 경찰 학교 시험에 대한 질문을 입수한 혐의가 있고, 회원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Source: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9/04/26/Turkey-orders-detention-of-210-military-personnel-over-links-to-Gulen.html>>





이번 터키 재선거를 통해 배운 다섯 가지 교훈

글: 하워드 에이센타트
번역: 한국 번역팀



지난 6월 23일 치러졌던 재선거 결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커다란 비난을 받았다.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 결과, 공화국민당(CHP) 후보 예크렘 이마모글루가 다시 당선되었다. 공화인민당의 후보가 승리한 것은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AKP)가 지난 25년간 지배해온 것을 뒤집은 사건이었다.

그것은 1,500만 명의 이스탄불과 터키에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결과였다. 이 선거의 결과가 가져온 엄청난 파장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명백한 교훈이 있다.

비관론자들(나와 같은)은 사건을 과장해서 말했다

선거가 점점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터키를 점점 더 권위주의와 결합된 형태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보았다. 2018년, 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을 조작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내 주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스탄불 선거는 세 가지 면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다. 첫째, 에르도안 시스템은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분열된 야당이여야 하고 또 하나는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는 선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단일화할 수 있게 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분열과 정복 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에르도안의 선거 조작 시스템은 야당 후보를 괴롭히는 것, 유권자 조작, 언론 통제 등을 포함한다. 전국 선거보다 주요 도시 중심에서 이러한 선거 조작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셋째, 에르도안이 여당과 야당의 표의 차이가 적을 때는 재선거를 해서라도 조작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선거에서 보인 결과를 보면, 공화인민당(CHP) 후보 에크렘 이마모울루가 압승을 거뒀고 54%의 지지를 얻었다. 오랜 시간 동안 에드로안의 정의개발당(AKP)의 거점인 곳에서도 이마모울루가 다수당을 획득했다. 이런 결과는 이스탄불 유권자들은 지난 3월 31일,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선거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는 함께 행동을 취했다

이마모울루는 최근 공화인민당이 더욱더 개방적이고 이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은 호적적이고 저항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계속적으로 나아갔다. 이에 반해, 이마모울루는 서비스와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유권자들은 이마모울루의 호소를 좋아했다.

경제가 문제였다

터키 경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마모울루가 어려운 터키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좋은 지배 구조가 요구된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보면 터키 물가 상승률은 19%인데 아마도 실제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터키는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태다. 정의개발당은 초기 몇 년 동안 경제 성장의 명성으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 경제 실패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쿠르드족 유권자들은 그들의 관심사에 투표한다.

2019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성공한 또다른 이유는 공화인민당, 친쿠르드 인민민주당(HDP), 좋은당(İYİ) 등 제1 야당 간에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적 동맹이 아니다. 3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한 무언의 친쿠르드 인민민주당 지지는 야당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맞서, 정의개발당은 쿠르드족 유권자들을 이기기 위해 주목할 만한 시도를 했다. 정의개발당 시장 후보는 쿠르드족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쿠르드족 도시 디야르바크르를 방문했고, 연설 도중 쿠르드족을 향해 말을 하기도 했다.

그 후,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독방에 수감해두었던 쿠르드노동자당(PKK) 지도자 압둘라 외즐란을 그의 변호사들과 가족들이 방문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외즐란은 선거에서 "중립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친쿠르드 인민민주당(HDP)은 외즐란의 용기를 칭찬하는 말로 응수했다. 그러나 이어 그를 무시했다. 쿠르드족 유권자들은 유력자를 따랐다.





터키 정부가 잃은 쿠르드족의 지지를 되찾으려면 냉소적인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지한 화해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르도안은 곤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인 터키로 가는 길은 위태롭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재선거를 하도록 선거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이는 승리를 보장할 확실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번째 손실은 첫 번째 패배에서 에르도안이 입은 정치적 피해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에르도안이 보여준 이러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실패를 주목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에르도안 통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에르도안의 통치가 더욱 더 개인화 되어가고 있고 가족들과 아첨꾼들이 기술관료들과 정치 파트너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의 정치적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며 실패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터키는 지금 위기에서 위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에르도안 자신의 내부 동맹의 불화뿐 아니라 그를 향한 정치적 반대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통치 방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완전히 억압적인 환경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터키의 동맹국, 외국인 투자자들, 유권자들은 에르도안이 처음에 성공으로 이끌었던 국가 혁신의 요소를 재창조함으로써 진로를 바로잡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랬다. 터키는 다시금 성공으로 끌어갈 수 있는 풍부한 기술 관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르도안이 정신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생명의 죽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더 개방적인 시스템은 정의개발당의 정치적 우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에르도안의 통치시 보여준 부패와 불법행위를 감안해보면, 에르도안과 그의 동료가 감옥에 갈 위험성이 높다.

지난 6월 23일에 있었던 선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터키 국민들이 독재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하워드 에이센타트는 세인트 로렌스 대학의 부교수이자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비거주 선임 연구원입니다.

〈출처 :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6/26/five-lessons-latest-elections-turkey/?utm_term=.c8c07ad59b2c〉





2019년,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이민자들 50명의 죽음

글: 휴리엣 데일리 뉴스
번역: 한국 번역팀



아나톨루 에이전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최소 5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터키 -이란 국경에서 발생했다. 32명의 이민자들이 터키 동부의 반 지방을 이란 쪽에서 건너려고 시도하면서 동사했다.

또 다른 두 이민자는 서쪽 에디르네 지방에서 사망했다. 에게해에서 발생한 4건의 사건을 포함해, 그리스 섬을 건너 가려고 하다가 총 16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사망했다

636 명의 이민자들 구금

한편, 5월 15일 터키 전역에 총 636명의 비정규 이민자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아나톨루 에이전시가 밝혔다. 총 565명의 이민자들이 터키 - 그리스 국경 근처 에디르네에서 수비대에 의해 체포됐다. 이민자들은 팔레스타인, 모로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출신이다.

또한 에디르네에서는 모로코와 알제리 출신의 16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미니버스의 사고로 인해 운전자를 포함 11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사이에, 서쪽 테키르다야 및 하타이 남쪽 지방에 있었던 작전에서 55명의 불법 이민자들의 구금을 확인했다.

터키는 특히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유럽으로 건너 가려는 난민들의 주요 통로였다. 내무부에 따르면 터키에서 2018년에 약 268,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되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아프간, 파키스탄, 시리아 및 이라크 국민이었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50-migrants-die-on-way-to-europe-through-turkey-in-2019-143468>〉





이슬람 울법학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글: 마지드 라피 자데
번역: 한국 번역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덕분에 이란 정부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어 이란 전역의 테러 집단과 민병대에 자금과 후원을 하려는 이란 지도자들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미디어 커먼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란 정부에 대한 그의 정책에 대해 비평하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치 체제에 부과한 제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급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비평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 냉각 정세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란의 사무국을 적절히 다루고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비평가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8년 동안 유화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유화정책을 확장해 나갔다. 이 기간 내내, 오바마 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이슬람 울법 학자들을 달래기 위해 전례 없는 양보를 했다. 그는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관용과 유연성으로 그들을 만났다. 결과는 무엇일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제되자,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 볼때, 이란의 행동이 세계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정당성과 제재 해제는 이란의 군대, 혁명 수비대, 이란의 민병대와 테러 단체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했다. 테헤란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등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 유입을 이용했다. 확장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을 달래고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엄격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제재 조치는 이란 정부가 자국의 동맹국, 민병대 및 테러 단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전에 없던 움직임으로 2019년 4월 17일 시리아 정부의 시리아 신문 알-와탄은 이란이 시리아 정부에 대한 신용 한도를 중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란 외무 장관 자바드 자리프가 2019년 4월 16일 시리아를 방문한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다. 시리아 신문은 이란이 지난 6개월 동안 시리아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알-와탄에 따르면, 이것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 현저한 압력을 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필요한 연료의 약 25%만 생산하며 나머지는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알 - 와탄이 이란 외무 장관 자바드 자리프 외무부 장관을 방문한지 하루만에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사실은 다마스쿠스가 테헤란이 신용 판매 및 석유 수출을 시리아로 확대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으로 알려진 공동 행동 계획(JCPOA)을 철회한 이후 이란의 석유 수입과 수출은 꾸준히 감소했다. 미국이 핵 협상을 포기하고 이란의 집권 성직자들에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전에 이란은 250만 배럴 이상을 수출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이후 하루 110만 배럴로 떨어졌다. 이는 50%이상의 감소를 나타낸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은 시리아의 민병대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란의 무장 세력은 급여와 복리 후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역에서 계속 전투하는 것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리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싸운 무장 세력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며 “황금 시대는 끝났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의 이란 대표인 하산 나스랄라는 이란에 대한 제재 압력을 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모금 활동에 “지하드에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진행 중인 전투를 도울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최근 이슬람 공화국의 1979년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란의 국가 통화인 리알은 사상 최저치인 2017년 11월 약 35,000리알에 달하는 1달러가 현재 약 130,000리알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덕분에 이란 정부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어 이란 전역의 테러 집단과 민병대에 자금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란 지도자들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126/the-us-sanctions-on-mullahs-are-working>〉

[저자에 대한 소개]

마지드 라피 자데 박사는 하버드 교육 학자, 정치 학자, 하버드 국제 리뷰의 이사 및 중동 국제 협의회 의장인 비즈니스 전략가 겸 고문이다. 그는 이슬람과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책을 저술했다





트럼프 평화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란 - 팔레스타인 계획

글: 크하레드 아부 토이메흐

번역: 한국 번역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지도자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마스 지도자인 야하 신와르 는 "이란은 우리에게 로켓과 돈을 제공했으며 텔아비브를 강타할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사진 : 2018 년 TV 인터뷰에서 신와르 . (이미지 소스 : MEMRI 비디오 스크린 샷)

미 행정부가 오래 기다려온 “세기의 거래”로 알려진 중동 평화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란은 이 지역의 동맹국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에 철저히 반대하는 급진적 팔레스타인 단체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를 포함한 이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야망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으며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한 여러 성명에서,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원폭 국가”가 될 것을 솔직히 바랐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는 이스라엘을 “암덩어리”로 언급하고 텔 아비브와 하이파의 도시들을 “몰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을 “아반적인 늑대와 같은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트위터에서 맹렬히 비난했다.

올해 초 이란 공군 사령관인 아지즈 나시르자데 장군은 그의 군대는 “지구상에서 이스라





엘을 없애 버리기 위해 시오니즘 정권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도자들과 관리들에 의한 그러한 위협은 드문 일도 아니며 새로운 것도 아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선동 정책과 시오니즘 정권을 몰살시키려는 이란의 오랜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란 지도자들은 중동의 그들의 대리인, 특히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에 재정 지원과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이제 이란인들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포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란은 또한 "세기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결탁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아랍 국가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하메네이는 대학교수, 학계 엘리트, 연구원들에게 일부 아랍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여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그가 그 나라들을 이름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메네이는 "세기의 협약"을 언급하면서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그 동료들은 분명히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들은 이제 트럼프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의 손에 있는 무기로 그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마스 지도자인 아히아 신와르는 "누구도 우리가 이란에 감사하다고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란의 지원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점령에 맞설 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다. 이란은 로켓과 돈을 제공하고 텔 아비브를 타격하는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지난해 이란은 가자 - 이스라엘 국경에서 벌어진 주간 시위에서 모든 팔레스타인의 사망과 부상자 가족들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에 반환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승인은 이란이 이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의미한다.

왈리드 아와드 팔레스타인 인민당 간부는 과거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가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이란이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세기의 거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의 선택이 필요하다"





가자 지구의 소식통은 이번 주에 이란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lestinian Authority, PA)로부터 급여를 못 받은 팔레스타인 직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당국은 의사와 학교 교사를 포함해 가자 지구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했다. 이 징벌적 조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지도부가 하마스 통치 가자 지구에서 경쟁자들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과격한 팔레스타인 그룹에 대한 이란의 재정 및 군사 지원 증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서 자국의 목표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의 평화 계획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모습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 근거지를 둔 “시온주의 단체”의 전멸을 약속하는 두 단체인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또한 팔레스타인 과격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과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그의 정권을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이란의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아랍 국가들을 꺾어 내리려는 테헤란의 노력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란과 팔레스타인 동맹국들은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들 간의 명백한 화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란의 이슬람 지하드 대표인 나세르 아부 샤리프(Nasser Abu Sharif)는 이번 주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합이 팔레스타인의 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세기의 거래”는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말 바레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기가 맞을 때”의 “세기의 거래”의 경제 부분을 공개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은 모든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명분을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핑계로 미국이 주도하는 “워크숍”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많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모하메드 자바 자프 이란 외무 장관은 미국이 무슬림을 배반할 대가로 미국을 보호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과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 지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이란을 경멸하고, 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경쟁자인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인 이란과 같은 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바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은 이란이 아랍인과 이슬람교





도들을 상대로 한 음모라고 비난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에서 선동적인 폭언과 "세기의 거래"에 필적한다.

팔레스타인 당국의 행동과 말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고 이 지역의 급진 아랍인과 무슬림을 강화하려는 이란의 자체 임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란 지도자들은 압바스 수반에 대해 만족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압바스 수반은 이 발언 하나하나가 미국과 협력하거나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아랍인과 무슬림들을 악화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아이톨라를 지지하고 있다.

크하레드 아부 토이메흐(Khaled Abu Toameh)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저널리스트 크하레드 아부 토이메흐는 가트스톤 연구소의 실만 저널리즘의 동료이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324/iran-palestinians-trump-peace-plan>〉





그리스, 에게해 섬들을 장악하여 국제법 위반

글: 앙카라-아나톨루 에이전시
번역: 한국 번역팀



그리스는 비무장 지대로 있었던 에게해 섬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터키 국방 장관이 4월 20일 밝혔다. 터키 국방 장관인 후루시 아카르는 그의 사무실에서 아나톨루 에이전시의 인터뷰 후, 그는 그의 그리스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스는 비무장 지대에 있는 에게해 섬들을 무장시켜 국제법과 조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터키 외무 장관은 아테네가 "조약에 위배되며 우정과 좋은 양국 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위반 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 섬들의 비무장 지대는 보호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가 지중해, 에게해 및 분쟁중인 키프로스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앙카라는 항상 국제 조약을 존중한다. "우리는 좋은 양국 관계에 찬성하며 모든 이웃 나라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카르는 그의 그리스 대표에게 "성실하고 건설적이고 좋은" 양국 관계의 틀 속에서 이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터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터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인도의 에게해 섬에 대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수십 년 간의 분쟁은 1996 년 무력 충돌의 위기를 두 국가에 초래했었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greece-violates-intl-law-by-arming-aegean-islands-akar-142798>〉





길예평 사역자 가족 인터뷰

카스타모누 2기 사역을 준비하며..

사회: 이세웅 편집인 (simonlee@silkwavemission.com)

정리: 이은옥 간사

참석자: 이 이세웅 편집인

길 길예평 사역자 (카스타모누)

명 길진명 사역자 (길예평 사역자 아내)

준 길예준 (자녀)

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 텐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나눠주시겠습니까?

길 저는 1989년 군대 훈련병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 교회에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 큰 누님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꼭 다녔어요. 큰 누님은 성장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상처받으셔서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누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님은 곳곳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어요.

사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니는 누님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누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때 신앙인이었던 누님이 상담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누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에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분위기에 5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진학하고 89년 여름에 공군에 입대를 했고, 누님의 계속된 기도와 권면 덕분이었는지 훈련소 입소 후 첫 주말에 종교행사에 참여하라는 상사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이 결국 군대라는 상황이 선교사님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었군요.



길 네. 군부대가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지요. 당시 중대장님도, 대대장님도 다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 알게 된 사실은, 제가 군 복무를 하는 3년 동안 누님과 누님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 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누님과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명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종손이었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를 만나 크리스천이 되었고, 친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손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10년이 넘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친가를 피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우리 가족의 피난처가 되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간 철야 기도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영적 경험과 은사,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성장한 후에 돌아보니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들 예준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준이는 언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준 저 역시 크리스천인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로 믿어졌어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

이 그럼 터키에 가서는 어땠어요?

준 터키에서도 기독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 수업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은 없었지만 매주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혹시 세례를 받았나요?

준 아직 안 받았어요.

이 저도 예준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입교를 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공부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의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준 저도 확실한 고백을 한 후에 세례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멘. 감사합니다. 세분의 간증이 너무나 귀하네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길 군대를 제대하던 날,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그 다음날 제게 집을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대학 복학 전, 몇 개월을 친구들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며 주일마다 문 앞에서 지키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복학 후에 대학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CCC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CCC 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좋고 성실한 아내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자고 했어요.



이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명 저는 처음에 남편이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 반대나 걱정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정 어머니의 어려운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란 저는 기도는 당연히 눈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늘 웃으며 기쁘게 생활하는 남편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7년을 교제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님 때문에 저는 남편과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엄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선택 결혼을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나요?

명 저는 중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집회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쓰시기 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CCC 훈련을 받으면서 참가한 한 수련회 마지막 날 헌신의 밤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선교사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저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원하셨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서원했습니다.

이 터키 선교사로는 어떻게 헌신하게 되셨나요?

길 대학 때 활동했던 CCC에서 사역하시던 김봉원 간사님이 터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 선교사님의 팀 멤버로 11년간 후원관리를 담당했어요. 이스탄불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신 선교사님은 매번 기도 편지에 브리스길

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요청 하셨는데, 결국 2002년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우리 가정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터키로 부르신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간 첫날 예배 시간에, 신명기 30장 말씀이 우리와 같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터키로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후 3년간의 준비 시간을 가진 후 2005년에 터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부터 터키로 들어가실 때 두 분의 마음속에 돕는 자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는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필데에서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 혹은 교회 개척에 대해 정리된 생각이 있으신지요?

길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을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터키 내에서 교회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를 통해 터키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교회 개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2005년에는 비즈니스 형태로 터키에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비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길 제가 들어간 해에 터키에 거주 비자가 처음 발급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비싸서 첫째에만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한국 교민들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비자 발급이 수월해져서 5년, 3년씩 거주 비자를 통해 터키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몇 년간 이스탄불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길 6년 정도 이스탄불 말테페 에서 김봉원 선교사님과 동역사역을 했고, 그 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1년에 잠시 한국에 나가 가정교회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터키에 가정교회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외에도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한 터키 선교사가 여러 명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터키 내 가정교회 사역을 격려해 주셔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2년 동안 성경공부 교재를 번역하고 출판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은 카스타모누에서 사역을 시작하신지 7-8년 정도 되셨는데 가정교회와 난민교회개척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길 사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교회 모델을 터키에 그대로 적용하여 뿌리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는 K도시에도 많은 난민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동역하는 젊은 사역자 가정과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카페도 열고 국제 교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스타모누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간 난민들이 그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을 중심으로 언어권 별로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국제교회에 모여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혹시 터키 사역을 돕고 있는 지역 교회에 하실 당부나 부탁, 도전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길 사실 한국의 지역 교회들은 중동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관심이 적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어서 선교 참여도가 낮아요. 그러나 저는 지역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서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 지각 변동들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동에서 사역하기로 결단하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길 우선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동에서 사역하기 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또한 터키와 이슬람권 사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준비를 잘 하고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한 열정만으로 터키에 왔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많이 미흡했고, 무슬림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부끄러운 고백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에서 사역할 선교사님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년 이후 2기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민 무슬림 선교는 이슬람권 선교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글: 김요엘 선교사
국제선교동원본부(IMM)
중동아랍 동원사역

들어가는 말

지금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문제는 국제 정치, 사회, 경제분야의 매우 중요한 문제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또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UNRWA)에 공식 등록된 숫자만 해도 최근 통계에 3,100만 명이 넘으며, 그 외에 경제적 이유, 인권, 종교, 인종, 문화적인 문제 등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는 실향민까지도 포함한다면 7,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난민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화적 차이, 또는 박해, 폭력,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민문제를 성경적으로, 선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행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 것이다. 이에 난민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난민 선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은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주셨다. 이 명제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교회는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구원으로 시작된 개인의 시발점이 전세계적인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결론이다. 그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진 나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종말은 의와 공의로 완성되어진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 89:14)

선교적인 교회는 대속으로 시작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의와 공의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선교가 없는 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선교를 교회의 한 부분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일으키셔서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위임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목적을 완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대위임명령 하에서 그 참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보통 말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전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제자삼기의 시작이 복음전파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방법적인 목적들이다.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보통 말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전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제자삼기의 시작이 복음전파이다. 대다수의 세계교회가 제자삼는 삶을 교회생활로 대치해 버렸다. 초대교회는 제자삼는 것으로 교회가 확장되었는데 그 후에 제도적 교회가 되자 교회의 시스템이 교회의 확장을 주관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제자삼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대의이다.

성경적 교회론의 재정립

지금 세계교회의 위기가 도래했다. 세계인구 비율로 볼 때 기독교는 더이상 성장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버렸다. 과거 70년대 이래 20세기 말까지 교회는 교회성장이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성장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또는 성장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번영신학이 슬그머니 교회를 장악했다. 그런 추세로 메가교회들이 생겨났다. 대형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형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의 대중 속에 묻어버리려는 경향이 많고 프로그램으로 교회사역을 대체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고생하고 박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선교도 편하게 하려고 한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퍼부어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슬람권 같은 곳은 별로 선호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후반부터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론적인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절대진리가 위협을 받고 세계교회는 하강추세로 돌입해 버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교회론을 잘못 가르친 우리 지도자들에게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초기 300년 동안 가장 왕성한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순교는 기본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대교회들이 위기를 깨닫고 20세기 마지막 판에 시작된 운동이 ‘미셔널 처치(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이 선교적 교회운동은 교회들의 왜곡된 교회론을 바로잡고 다시 성경적 DNA로 유전자 교체를 해서 교회론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운동이다.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관점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독교 선교의 마지막 대적 이슬람 포교

1990년도 초반에 조지 오티스가 '마지막 거인(The Last Giant)'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핵심은 기독교 선교에 마지막 대적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것이다.

이슬람 인구는 1970년도에 약 4억 3천만 정도에서 2000년에는 9억 정도로 거의 두 배 이상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퓨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의 기독교인구는 21억 3천만 명(31%), 이슬람의 인구는 16억 명(23%) 정도이었는데, 이 증가추세로 나가면 2050년경에는 이슬람이 73%, 기독교가 25%로써 소수종교가 된다고 예측했다.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선교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 뿐이다. 1989년도에 구소련체제가 순간적으로 와해되고 서구민주 세계가 승리했다고 자축하며 미국의 수퍼파워를 자만하던 시기에,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문명의 충돌'이란 저서를 통해서 앞으로는 동서의 이념대결이 아니라 문명권 간의 충돌이 일어나며 그 중에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권의 충돌에 대해서 예측했는데 그가 주장한 대부분의 가설들이 현실화되어서 일어났다. 코소보사태, 911사태, 걸프전쟁, 아프간전쟁 등 그 후에 일어난 충돌들을 보면 그 저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권과 기독교적인 서구권과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ISIS 같은 사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Abu Bakhr Al Bagdadi) 라는 전에 알카에다 출신인 이슬람 과격분자 하나가 자신이 이슬람 종주국의 칼리프라고 하면서, 내전으로 인하여 보안이 다 허술해진 틈을 타서 시리아의 북동쪽 한 모퉁이에서 갑자기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의 설립을 선언하고 이슬람의 원리주의 가치를 들고 수많은 만행을 저지렀던 사건도 이것 중에 하나이다.

전략적인 선교

전략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꿰뚫는 방향과 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난민선교가 왜 한국교회의 이슬람권 선교에 가장 전략적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한다.

이 시대의 난민은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영혼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주권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를 찾아간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의 원칙이 금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불균

형과 불평등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타국인(거류민)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9:33-34)

타국인(거류민)이란 표현은 영어로 이방인(Alien), 나그네(Sojourner)과 외국인(Foreigner)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있는데 모두 히브리 원어로는 똑같이 '게르(Ger)'이다. 위와 같은 명령이 신명기를 포함해서 여러 번 나온다. 물론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구약시대에 있어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취약세대였다. 여기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민선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 렇기에 성경적이다.

예수님도 난민 출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도 난민 출신이셨다 (헤롯이 그 시대에 출생한 모든 유아들을 잡아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예수는 애굽으로 망명).

난민선교는 이슬람권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유럽에 최근 10년 간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 중의 87%가 무슬림들이란 통계를 보았다. 우리가 그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이슬람으로 포교할 것이다.

한번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슬람이 발흥된 7세기 이후 거의 1400여 년 동안 한번도 이렇게 이슬람권이 활짝 열려진 적이 없었다. 데이빗 개리슨이라는 선교역사 학자가 3년동안 전세계 25만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무슬림 개종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20세기 말까지 1400년 동안 무슬림들이 대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운동은 5번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온 후 약 첫 12년 정도까지 69개의 무슬림 기독교 개종운동이 일어났다고 그의 책 "이슬람권에 부는 성령의 바람(가칭)"을 저술했다. 이것은 중동/아랍/유럽의 난민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통계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지역 아랍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밖에 다른 할 말이 없다.

우리도 20년 가까이 이슬람권 선교를 해오고 있지만, 지난번 터키에 가서 무슬림 난민들의 개방된 마음을 보고, 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바로 무슬림 선교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인 것에 틀림이 없다. 2015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난민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나에게 “내가 이들을 다 풀어 놓았는데 너는 동원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들어 난민사역에 동역하게 되었다. 전에는 무슬림 선교를 하려면 꼭 이슬람지역으로 갔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대문 밖에 자진해서 찾아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무슬림 난민선교 어떻게 할까?

이슬람의 핵심은 아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는 숫자 상으로 아시아권인 인도네시아에 2억이 넘는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지만, 아랍어로 된 꾸란을 직접 읽으며 이슬람 특히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순니 이슬람의 신학이 나오는 중동 아랍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드운동의 원조인 무슬림형제단이 이집트에서 발흥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2000킬로미터 직경으로 꼭꼭 쌓아서 포위하고 있는 곳이 중동 아랍지역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데 있어 아랍이 변하지 않으면 이슬람권 선교의 핵심을 놓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 아랍(단지 지정학적, 혈통적 아랍만이 아닌 총체적 의미의 아랍)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선교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실상이다. 특히 중동내전 전쟁상황과 IS 사태를 통한 아랍/터키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과거에 하던 아랍지역 단기선교도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암울한 크리스천 핍박과 순교사건이 그저 생활처럼 일어났던 초기 5세기까지가 가장 기독교가 팽창했던 시대이다. 고난과 핍박은 기독교가 피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 복음과 한 패개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려면 한국교회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

아랍 무슬림 선교전략에 있어 ‘아랍은 아랍이’ 선교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터키 안에 있는 360만 명의 시리아 난민과 약 50만 명의 이라크 난민은 아랍권이고 상당수의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들은 대부분 아랍어를 구사한다. 그러므로 이 난민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에 있는 교회에서 아랍어권 선교사들을 그곳에 파송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다. 그들은 벌써 아랍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

으며 타문화 선교훈련과 교회개척 등 사역적 훈련만 쌓으면 바로 선교현장에 교회개척 자들로 투입될 수 있다. 그리고 선교비도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 선교전략적으로 볼 때 저비용 고효율이다. 한국선교사 아랍투입 교회개척자 1유닛 파송할 재정이면 최소한 3유닛, 4유닛까지도 파송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에 열정적이다. 한국의 새벽기도 운동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 선교에 있어 기도는 가장 전략적인 하나님의 경영방법이다. 10년 이상 터키에서 선교중보기도 운동을 주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어 그 기도하는 교회들의 교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도하던 지역에 난민교회개척과 제자훈련을 통한 무슬림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실크웨이브 선교회(SWM)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보낼 현지인 선교사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기가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크웨이브 선교회(SWM)가 오랜기간 기존 선교중보 기도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현지교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후방지역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난민선교에 있어서 단기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SWM 선교회에서 봄, 가을로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킹덤아웃리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 아웃리치는 전략적인 난민사역지를 방문하고 기도한다. 이것은 선교 비전트립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난민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담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의 내 삶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기도하게 되고 그 선교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하면 이제는 좀더 실제적인 단기선교 사역 트립을 교회차원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은 현장의 영적 육적 실제적 필요들을 채워주는 사역이다. 단기팀들이 그곳의 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지역자들과 또는 현지어를 하는 현지교회팀들과 연합 사역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간과 재능 외에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도와야 한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60년도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경제 10개 대국에 들어섰다. 이제는 우리가 주어야 할 때다. 우리의 적은 헌신이라고 해도 모이면 난민선교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가는 말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어렵듯이 보았다. 이슬람세계가 아랍혁명과 전쟁 등을 통해서 혼돈의 시대가 된 것은 마지막 대적인 이슬람권을 흔들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슬람권에 복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 무슬림 선교는 지금 우리가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슬람권 선교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께는 아무 것도 아니다. 70년의 공산 소련이 하루 아침에 장벽이 무너져 내렸듯이, 이슬람도 거짓종교라는 것만 알려지면 한 방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관계중심적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서 이슬람권 선교가 설사 그것이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남의 옷 입은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진다 해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현재 역동적으로 일 하시고 계신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선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글: 스티브 스미스
번역: 김지영 집사 (새누리교회)

외딴 곳에 사는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간 200개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도시와 지방에서 15만 개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맨 처음, 그 이후엔 뭔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나 기뻐 흥분하는 반응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운동(CPM)은 문화와 종교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단시간 내에 4세대를 넘어서는 제자화와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전통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운동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CPM 같은 운동은 근래에 발생한 현상만은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해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확장되고 전진해왔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신 자신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이러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며, 이는 성경 말씀 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되어 왔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전 생애를 드린 제자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가 급속도로 배가하고 세대를 거쳐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목도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세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

복음 :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백번 이상 사용하신 반면 “교회”라는 단어는 단 두 번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그의 첫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은 현재형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식은 매우 급진적인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개념을 전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동네와 도시, 나라 또는 종족이 주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냄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를 의사가 없으신 일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까? 하나님은 한 종족이나 도시 안에 그저 적은 수의 신자들, 작은 모임이나 교회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종족에서 허다한 수의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인류의 역사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 1:3)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에 있었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사도행전 :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2배 이상 사용되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교회라는 전략을 사용하신 것이다. 배가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셨다.

초대 교회 사도들에게 있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최고 관심사였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행 19:8-10)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확장되어 갔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로마령 아시아에서는 12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교회들은 깊이 성숙하며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2년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골로새의 에바브라 같은 제자들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에 동의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예수님 자신의 사역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한 위임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에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교회 또한 바로 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 균형 잡힌 접근,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

“교회”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3배 이상 자주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균형 있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비전은 신약 교회 전반에 걸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교회의 패러다임은 하





나님 나라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계 2:19)’는 칭찬을 받은 반면, 어떤 교회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었다(계 2:4). 책망을 받은 이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기록에 나온 대로 수십 년 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에베소 교회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라는 포커스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성공, 체제나 관습에 집착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예수님께서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실수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교회의 체제와 프로그램, 전통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보다 높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쉽게 최종 목표점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왜 교회인가?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 교회는 하나님 나라 비전의 중심에 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양자택일해야 하는게 아니라 둘을 다 취해야 한다. 교회가 왕 되신 주님과 그의 나라의 방식에 순종할 때 교회는 예비된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 예수의 발아래 두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즐거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비하고 비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 비밀은 바로 “정한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게 하신 것”(엡 1:9-10) 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 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품고 계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엡 1:22-23)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 온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그의 통치-으로 채우는 존재로 세워졌다. 교회는 아들의 신부로 그의 영원한 동반자로 부름받았다.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 19-21에는 교회가 흠 없이 빛나는 모습으로 단장되어 아들에게 드러지는 영





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진다. 모든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신부가 예비되어 아들에게 드러지는 그 순간을 위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개혁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실상 교회 개혁은 상당히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다.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의 몸의 일부로 연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에 있어 동력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모든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교회 개혁 운동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제자와 교회의 배가 운동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모든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자기의 취향, 전통, 사교체계 등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에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성 교단과 교회들의 전도 속도가 인구 증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세대의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의 모든 문화와 지역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에는 지역의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제자들의 수가 늘어가거나 교회가 확장되는 조짐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교회 개혁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도래의 비전과 사도행전의 영성을 떠올리게 하고 역사적인 웨슬리안 부흥운동과 초기 침례교 교회 개혁 운동을 생각나게 한다. 소명의식을 가진 신자들이, 각자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DNA와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패러다임을 버리다

그러나 모든 배가 운동은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 새로운 방법과 방식들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건 요한 웨슬레건 이 패러다임들은 처음에





는 기존 교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그러나, 온전한 인내와 지속적인 열매를 통해, 이 패러다임들은 결국 표준이 되었다. 역사를 보면, 지금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미래에는 일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영적 운동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패러다임, 체계 등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내려놓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말씀이 순종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완벽한 교회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확장이었다.

하나의 성경적 교회 모델이 제시된 바는 없다. 오히려, 문화에 맞춰 변형된 많은 교회의 예들이 성경에 나온다. 각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모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주기도문의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가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린 평범한 신자들의 모임으로, 끊임없는 재생산을 통해 확장하는 교회이다.

성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능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령을 거슬러 우리의 방식과 체제를 고집하는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 9:17)**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요동치고 있다. 성령의 포도주가 발효되어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도래여야 한다.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마음을 완고하고 강박하게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의 패러다임을 내려놓아야 할 때이다!

〈출처: <http://www.missionfrontiers.org/issue/article/getting-kingdom-right-to-get-church-right>〉

저자인 스티브 스미스는
LA에 교회를 개척했고 동아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한
교회 개척 운동(CPM)을 돕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CPM 사역자들을
훈련해왔고 남아시아
SBC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사역을 감독하고 있다.





2019 교회개척 리서치트립안내

터키에서 진행되는 교회개척운동과 난민돕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미국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일정(터키시간): 2019년 10월 28일(월)~11월4일(월)

- 10/28(월) 미국출발
- 10/29(화) 이스탄불 도착
- 10/29(화) 한국출발
- 10/29(화) 이스탄불 도착
- 10/30(수) 앙카라 방문
- 10/31(목) 터키 동부 아라랏산(노아방주) 반 방문
- 11/1(금) 반, 아크다말 섬 Holy Cross 교회 방문, 디야르바크르 이동
- 11/2(토) 디야르바크르 방문, 하란 / 수루치 / 가지안텝 방문
- 11/3(주일) 가지안텝 교회, 안디옥 방문, 동굴교회
- 11/4(월) 안디옥 - 이스탄불 - 미국.한국으로

등록문의: 김영진 간사(714.999.8639) | 한국: 임동혁 간사(010.8632.0278)